

2015년 빅 프로젝트... 건설시장 부활하나

채 희 찬 | 건설경제신문 산업1부 기자
chc@cnews.co.kr

정부의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에 힘입어 한동안 침체된 공공 건설시장이 부활의 날개짓을 하고 있다. 최근 건설업계는 유가 하락과 해외 플랜트 현장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며 해외발 쇼크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10년 간 건설업계를 짓누른 실적공사비를 손질하고, 덤핑 수주와 부실 시공의 주범인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종합심사낙찰제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공공공사에 변화를 주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한 '골든 타임'을 잡기 위해 SOC 분야에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주요 공공기관들이 예년보다 발주 물량을 늘리고 있다. 이처럼 건설업계에 구원투수로 등장한 공공시장이 올해 선보일 대형 프로젝트를 살펴본다.

올해 최대 규모, 신고리원전 5·6호기

올해 공공시장 부활은 플랜트 분야가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새해 벽두부터 입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공공시장에서 최대어로 손꼽히는 추정가격 1조 4,004억원 규모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주설비 공사를 집행했다. 특히, 한수원은 원전 사상 처음으로 이번 입찰에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을 적용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규정한 최고 난이도인 A등급(기술 강조형)보다 높은 설계 대 가격 비중이 8 대 2인 이른바 '최고가치낙찰제'를 추구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010년 신한울(신울진) 1·2호기 이후 5년 만에 나온 국내 원전인데다 향후 해외 원전시장 진출에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 출



올해 공공시장 부활은 플랜트 분야에서 시작되고 있다. 특히,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올해 공공시장 최대어로 부각되고 있다. 사진은 신고리 원전 1·2호기 건설 장면.

사표를 던진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간 물러설 수 없는 진검 승부를 예고한다. 지난 2013년 하반기부터 공공시장에서 자취를 감춘 삼성물산은 두산중공업, 한화건설과 짝을 이루며 오랜만에 공공시장에 복귀했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가동 원전(6기) 시공 경험을 보유한 대림산업은 SK건설, 경남기업과 팀을 꾸렸다. 또한, 대우건설은 현대건설, 포스코건설과 손잡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5위권 내 건설사들로 막강 진용을 구성했다. 한수원은 오는 6월 1일 입찰서 및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을 예정으로 어느 팀이 올해 공공시장 최대어를 낚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영남LNG·서울복합 기전 공사도

신고리원전 5·6호기 주설비 공사를 비롯해 올해 공공 플랜트 분야는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일감이

예년에 비해 풍성하다.

먼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최근 열병합발전소 가운데 최대어인 2,079억원(추정가액) 규모의 '화성동탄2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를 선보였다. 이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반산업단지 내에 발전설비 시설 용량 757mw(전기), 524Gcal/h(열) 규모의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한화건설, 두산중공업 등 9개사가 출사표를 던져 2월 말 입찰을 기다리고 있다.

이어 한국남부발전은 공사비가 1,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영남LNG 건설공사를, 한국중부발전은 공사비 1,300억원 규모의 서울복합(800mw) 기전공사를 이번 달에 발주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중부발전의 신서천복합(1,000mw) 토건공사와 한국남동발전의 영흥

7·8호기(1,740mw)가 대기하고 있다. 신서천복합(1,000mw) 토건공사의 공사비는 3,400억원으로 추산되며, 영흥 7·8호기는 환경부와 연료 협의가 남아 있어 발주 시기는 유동적이다.

6.5조원 규모 대형 철도공사 쏟아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은 철도 분야는 올해도 녹색 바람(?)을 타고 전국적으로 대형 일감을 선보이며 공공 토목 분야에 한 축을 맡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 상반기 총사업비가 5조 2,543억원에 달하는 노반 신설 공사 30건을 쏟아낸다.

우선, 1조 6,460억원 규모의 서해선 복선 전철 8개 공구와 1조 5,382억원 규모의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 전철 8개 공구 노반 건설공사는 올 1분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공구 분할이 진행 중인 3,880억원 규모의 영천~신경주 노반 공사 3개 공구도 1분기에 내놓고, 단일 공구로는 최대 규모인 2,600억원 안팎의 이천~문경 철도 건설 5공구 노반 공사도 3월 이전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어 2분기에는 5,784억원에 달하는 보성~임성리 철도 노반 공사 5개 공구를, 3,600억원 규모의 장항선 개량 2단계 1, 2공구도 발주한다. 아울러 1,261억원 규모의 이천~문경 2공구도 2분기에 선보일 예정인데, 이들 28개 노반 공사는 최저가낙찰제 또는 종합심사낙찰제 시범 사업으로 주인공을 선정한다.

올해 철도 분야의 기술형 입찰은 이천~문경 6, 8공구 노반 공사가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2분기에 공고를 낼 예정이며, 총공사비는 3,576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또한, 총공사비가 1조 2,806억원에 이르는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암사~별내) 건설 공사도 대형 일감으로 눈길을 끈다. 총 6개 공구 중 턴

키 방식으로 결정된 3, 4, 6공구는 이번 달에 선보이고, 서울시내 구간인 1, 2공구와 경기도 구간인 5공구는 기타 공사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부터 착수한다.

도로 분야, 공공 토목이 큰손으로 부활

올해는 한동안 녹색 철도에 밀린 도로 분야가 공공 토목시장의 큰손으로 부활한 점이 눈에 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총예산액이 3조 8,146억원에 이르고, 공구별로 1,000억원을 넘는 고속도로 5개 노선 신설 및 확장 공사 20건을 선보이며 대형 발주기관으로 되살아난다.

먼저, 오는 5월 광주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1공구(이하 예산액 1,247억원) 및 2공구(1,136억원)에 이어 7월에는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 간 건설공사 1공구(1,606억원) 및 2공구(1,684억원), 3공구(1,660억원), 4공구(1,850억원), 5공구(2,052억원)를 집행하기로 했다. 고속국도 제1호선 남이~천안 간 확장 공사 1공구(1,521억원) 및 2공구(1,359억원), 3공구(1,739억원)와 고속국도 제14호선 창녕~밀양 간 건설공사 1공구(2,641억원) 및 2공구(1,819억원), 3공구(1,877억원), 4공구(2,003억원), 5공구(1,612억원), 6공구(2,566억원)도 오는 7월 발주할 계획이다. 오는 11월에는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1공구(3,028억원)와 2공구(1,511억원), 3공구(2,024억원), 4공구(3,211억원)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 올해 대형 공사 집행에 막을 내린다.

이와 별도로 새만금개발청이 총공사비가 1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도로 건설공사 6건을 기술형입찰 방식으로 집행할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이 중 총공사비가 7,535억원에 이르는 남북2축 도로 건설공사 4건은 턴

키 방식으로 발주한다. 이에 앞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선보인 동서2축 도로 건설공사 1공구는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GS건설이 대형사 간 빅매치를 연출하고, 2공구는 롯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맞붙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 밖에 전남도가 조달청을 통해 턴키 방식으로 집행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공사 1, 2공구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선보인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공사도 1,000억원을 넘는 대형 일감이다.

수자원 · 항만 · 농토목도 일조

수자원과 항만, 농업토목 분야도 오랜만에 대형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공공 토목시장 부흥을 거둔다.

먼저,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7월 총예산액이 4,102억원에 달하는 송산그린시티(GC) 남측 지구 조성 공사 3개 공구와 1,000억원 규모의 부산에 코델타시티 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다. 또한, 오는 5월 1,517억원 규모의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 안정화 건설공사는 턴키로, 오는 8월에는 수도권(Ⅱ) 광역상수도 관개생 1공구(638억원)와 2공구(1,103억원)를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잇따라 선보인다.

항만 분야에서는 1999년 2단계 개발사업이 끝난 후 15년 만에 추진하는 동해항 3단계 개발에 따른 방파호안 및 동방파제 축조 공사 2개 공구(3,551억원)는 턴키로, 북방파제 축조 공사 2개 공구(3,422억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올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와 함께 입찰 방법이 턴키로 결정된 포항신항 스웰대책 시설 공사(1,226억원)도 발주를 앞두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새만금 농업용지1-1공구 조성 공사(도급액 1,251억원)를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하며 공공 토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도급액 1,065억원의 삼교방조제 배수갑문 확장 사업은 턴키 방식으로 국토교통부에 대형 공사 입찰 방법 심의를 요청해 기다리고 있다. 공사는 턴키 방식으로 결정되면 입찰안내서 작성을 거쳐 오는 4월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마감 관심

그동안 주한 미군기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사업으로 공공시장을 견인한 건축 분야는 신규 수요 부족으로 대형 일감이 줄어 아쉬운 상황이다.

올해 최대어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는 2분기에 선보일 제2여객터미널 마감 및 부대설비 공사로 총공사비는 6,324억원에 달한다. 인천공항 3단계 건설에 마침표를 찍을 이 공사의 입찰 방법과 공구 분할은 미정이라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세종시 복합민원센터 및 경기도 신청사, 차세대 전투기(F-X) 수용 시설, 국립중앙수목원, 전북대 병원, 충남대 세종제2병원, 대구교도소, 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 공사 등도 1,000억원을 넘는 대형 기술형 입찰로 눈길을 끈다.

환경 분야에서는 제주 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설 설치 사업 및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설치 공사, 용인 하수처리장 개량 사업, 하남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행복도시 2단계 수질복원센터, 화성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 공사 등이 대형 일감으로 손꼽힌다. 이 중 1,092억원 규모의 용인 하수처리장 개량 사업은 한국환경공단 이 오는 6월 턴키 방식으로 집행한다. CERIK